

■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이신바예바

“ 앞으로 100년간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 세우고 싶다 ”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가 “100년간 누구도 깰 수 없는 기록을 세우고 싶다”며 위대한 목표를 밝혔다.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2008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24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신바예바는 “언제나 높이 뛰는 게 목표다. 궁극적으로 100년 동안 아무도 깰 수 없는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단정하게 말했다.

이신바예바는 “내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나만의 주문을 건다.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베이징올림픽 남자 8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케냐의 철각 윌프레드 번게이(28), 남자 세단뛰기 동메달리스트 리번 샌즈(27·바하마), 여자 100m에서 4위를 차지한 로린 윌리엄스(25·미국) 등이 참석했다.

그에 앞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겨룰 한국 선수들도 합동 인터뷰를 갖고 각오를 다졌다.

베이징올림픽 남자 110m 허들 예선에서 13초55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정준(24·안양시청)은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데 배운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내 최고기록을 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톱 10에 진출했던 김덕현(23·광주광역시청)도 “내 최고기록이자 한국 기록인 17m07을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년째 기록을 못 깨고 있는데 변화를 위해 계속 뛴가를 시도 중”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5m5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그는 세계기록을 그동안 24차례나 갈아치웠고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목표로 “5m15까지 뛰고 싶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구 대회에서는 신기록을 보기 어렵다. 전망, 이신바예바는 “올림픽 직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집중력을 높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올해 가장 큰 대회로 삼았던 올림픽이 끝났기에 의욕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뛰는 건 언제나 즐겁고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뛰기 전 수건이나 담요를 뒤킵어쓰고 주술을



호날두 헤딩 선제골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왼쪽에서 세번째)가 24일(한국시간)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 헤딩골로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성 빠진 맨유 칼링컵 1승

‘득점 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리그 컵대회에서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린 반면 두 경기 연속 골을 노렸던 박지성(27)은 결장했다.

호날두는 24일(한국시간) 오전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린 2008-2009 잉글랜드 프로축구 칼링컵 3라운드(32강) 미들즈브러와 홈경기에서 귀중한 선제골로 3-1 승리에 앞장섰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1골로 득점왕에 오른 그는 42골을 수확한 뒤 오른쪽 발목 수술을 받았던 호날두는 득점 행진을 재개

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맨유는 호날두의 선제골과 라이언 깁스의 결승골, 루이스 나니의 쐐기골을 앞세워 올 시즌 홈경기 첫 승을 올려 칼링컵 16강에 안착했다.

반면 박지성은 지난 21일 첼시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교체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비야 레알(스페인), 첼시와 라이벌전에 잇따라 뛰었던 박지성에

미들즈브러와 32강 홈 경기 호날두 시즌 첫골...3-1 승

게 휴식을 주는 대신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기용했다.

설기현(28·풀럼)은 2부(첼피언십) 번리와 칼링컵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으나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풀럼은 번리에 0-1로 무릎을 꿇어 32강에서 탈락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은 카를로스 벨라의 헤트트릭과 니콜라스 벤트너의 두 골을 앞세워 세빌라 유나이티드를 6-0으로 완파했다.

“요시다, 한판 붙자”

‘격투기’ 추성훈, 日 유도 영웅에 공개 도전



유도 출신 격투기 스타 추성훈(33·일본명 야기야마 요시히로·사진)이 일본 유도 영웅 요시다 히데히코(39)와 맞대결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그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성훈은 23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드림 대회 미들급 원패전에서 도노오카 마사노리(35·일본)를 1라운드 TKO로 제압한 뒤 “요시다 선배, 후배의 도전을 받아달라. 연말에 맞붙고 싶다”면서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추성훈이 지목한 요시다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유도 78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일본 격투기 스타 가운데 한 명. 그

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격투기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추성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양명규 FEG 프로모터는 둘의 대결 가능성에 대해 24일 “요시다가 유도를 주축기로 하는 격투기 선수 중 일본에서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어 추성훈이 그와 대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소속된 격투기 단체가 달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양 프로모터는 이어 “요시다가 존재하는 한 추성훈은 자신을 2인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이번 맞대결에 대한 추성훈의 강한 의욕을 설명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추성훈-요시다 대결 성사 여부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추성훈이 그동안 출전해 온 ‘드림’과 요시다가 활동하는 ‘센코쿠’가 서로 경쟁 관계 대회여서 둘의 격돌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내다봤다.

한국 남 배구팀 4연승...4강 안착

인피 3-0 완파...아베구연맹컵

남자 배구대표팀이 제1회 아시아배구연맹(AVC)컵 대회에서 4연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신치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4일 태국 북동부 나콘라차사마 MCC홀에서 열린 대회 넷째 날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세트스코어 3-0(25-15 29-27 25-23)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25일 호주-중국전 승자와 4강대결을 벌인다.

이기긴 했지만 자칫 망신을 당할 뻔한 위

기도 있었다. 1세트를 어렵지 않게 따낸 한국은 2세트 후반 인도네시아의 가로막기에 자주 걸리며 공격의 활로를 뚫지 못했다. 23-24로 끌려가며 2세트를 내줄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박철우의 스파이크로 듀스를 만든 한국은 4차례 듀스 점진 끝에 간신히 2세트를 따냈다.

3세트에도 인도네시아 주포 리잘의 타점 높은 스파이크에 자주 풀리며 18-18 동점을 허용했지만 박철우와 문성민 좌우 쌍포의 공격과 이선규의 블로킹을 앞세워 20-18 리드를 잡았고, 박철우가 오른쪽 강타로 결론을 냈다.

- 25일(목)
- ▲2008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 보스턴(07:55·Xports)
 - ▲제30회 신세계 KPGA 선수권 대회 2R(12:50·Xports)
 - ▲2008 SBS코리아투어 삼성 베네스트 오픈 1R(14:00·SBS골프)
 -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히로시마(17:55·MBC ESPN)
 - ▲2008 프로야구<우리> 두산(18:10·SBS스포츠) (LG:SK)(18:20·Xports) (롯데:삼성)(18:30·KBS N SPORTS)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p>개업·성업 안내</p>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p>	<p>담양한우암소전문점</p> <p>북구 양산동 청암@103동 뒷편 최고의품질 최상의서비스 100%한우 한우암소전문 ☎(062)575-4458</p>	<p>청송대패삼겹살</p> <p>북구 양산동 우미@건너 단체 손님환영 대표 송영식 ☎(062)576-1118</p>	<p>풍년갈매기삼겹</p> <p>북구양산동광주은행양산지점옆 돼지갈비 삼겹살전문 ☎(062)575-3292</p>	<p>암소한우고기장터</p> <p>북구 매곡동 사촌웨딩홀 뒷편 한우꽃갈비삼,한우꽃등심,생비육회,암소 모듬구이,비빔밥 단체손님환영 ☎(062)573-9392</p>	<p>대원축산</p> <p>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앞 100%한우암소 국내산 임돼지판매 100%한우암소만을 장성대원농장직영 ☎(062)264-3005</p>	
<p>마인레스토호프</p> <p>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근처 차,식사,주류 ☎(062)974-0514</p>	<p>김가네(침단산원점)</p> <p>광산구 월계동 부영@114동건너 즉석김밥전문점 도시락 단체주문 포장환영 ☎(062)974-0029</p>	<p>여수아나고</p> <p>광산구월계동송곡@월계교뒤막자골목 분장어구이전문 자연산100% 대표 김영철 ☎(062)973-2510</p>	<p>숯불마당</p> <p>남구 양림동 주공@정문 앞 삼겹살, 목살, 왕갈비 새로운단장 최선의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18)622-8141</p>	<p>와우&조이(문화의전당점)</p> <p>동구 충장로1가 베네치아옆 국산맥주 무소건2,000원 서계맥주4,000원 대표 선영래 ☎(062)232-7111</p>	<p>베네치아(충장점)</p> <p>동구 광산동 구도청과 그랜드호텔사이 할인카드내내-광주비자카드우리카드 SK멤버십,현대M포인트등 각20% ☎(062)227-1122</p>	<p>증양홍포사</p> <p>북구 유동 한국노총 옆 수령음(총칼)황사(총칼)한양(총칼)총칼(총칼) 방범장비 수렵장비일절 ☎(062)526-0526</p>
<p>한울이용원</p> <p>서구광천시장동사무소옆 귀송원대학옆 커피,스포츠,염색전문 모범업소 대표 김장호 ☎(062)362-8051</p>	<p>하늘먹은혹염소</p> <p>북구 용봉동 미래도모아@ 입구 혹염소요리전문점(수육,전골,탕,주물레) 대표 이상수 ☎(062)523-9665</p>	<p>김가네간짜기&짬뽕</p> <p>남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정문옆 48시간! 숙성시킨 웰빙식품 ☎(062)651-9288</p>	<p>참나무장작구이(오암점)</p> <p>북구 오암동 벽산블루밍 309동 앞 깊은나무향기 베이컨통삼겹,오리훈제비둘기 대표 조성진 ☎(062)526-0192</p>	<p>건국내츄릴비타하우스</p> <p>남구 봉선동 모이2차 버스승강장 옆 과일바탕,칼슘제,홍삼상행버섯,녹용,황기 선물세트다량보유 ☎(062)651-0311</p>	<p>양림당구장</p> <p>남구 양림동 기독교병원4거리 코시미트2층 최신식 최선의서비스 당구장 대표 박광선 ☎(011)604-9523</p>	<p>복 돼 지</p> <p>남구 양림동 기독교병원거리 서양비율금고앞 삼겹살,돼지갈비(국내산양돼지),생더링,원장짜개 대표 이철복 ☎(062)676-4346</p>
<p>하늘위에강태공</p> <p>북구 용봉동 농협뒷골목 강태공(정식)산우육(매운탕)해물(달걀)노천(냉면) 생선(산)올빼미(두부)치기(수)모집17-23시 ☎(062)527-9088</p>	<p>헤어필미용실</p> <p>동구 학동 정도프라자 맞은편 컷트,펌,염색,업스타일전문 원장 양경순 ☎(062)227-4690</p>	<p>장인프로광택</p> <p>서구매월동 풍암자동차매매 2단지 앞 특수광택,특수유리광택,실내크리닝 체인점 및 기술 연수생 상담 ☎(010)7175-0865</p>	<p>동강뷰티아카데미</p> <p>북구 두암동 동강대 후문 앞 피부,발,비만,체형관리 천연비누,천연화장품 취미과정 ☎(062)529-5005</p>	<p>소리음악학원</p> <p>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덕산맨션 건너편2층 뮤이유류초중고악기반(특기)특강(취미)반(수업) 대표 홍명원 ☎(062)523-4763</p>	<p>진공인증개사</p> <p>북구 오치동 주공@204동 맞은편 이파트,주말,날,일,원룸,상가,각종도지 임대및매상당전문이파트매및전월세구합니다 ☎(062)251-9494</p>	<p>쌍암골연탄이야기</p> <p>광산구 쌍암동 침단지구 배기재 맞은편 생요리구이,오리주물럭,삼겹살,생목살,목살전문 대표 위성진 ☎(062)973-7975</p>